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짧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 말씀을 읽으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혀 보여 주고 계십니다. 본문 18,19절을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복된 소식이 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에 눌러 있고,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이 삶을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많은 책임과 의무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잘 살아낼 능력도 지혜도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중심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삶을 책임지는 데서 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 내가 내 삶을 주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 분노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공포, 걱정, 염려,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술, 담배, 정욕, 질병, 악한 습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메여 있는 자들이라고 알려 줍니다. 그런 눈으로 인간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실 죄에 포로되고 눌러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을 묶고 있는 것으로 인간을 자유케 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 24절에 보면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도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보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눈먼 자는 사실 육신의 소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 들이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이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닫힌 영적인 눈을 활짝 뜨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 땅의 것들이 썩어질 것들로 보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영원한 천국도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알게 되는 눈,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눈이 뜨여지는 것이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과 회복,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나의 것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1-2)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2/27(월)	12/28(화)	12/29(수)	12/30(목)	12/31(금)		
계4-9	계10-14	계15-18	계19-22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QT

이번 주 QT 말씀

12/27(월)	12/28(화)	12/29(수)	12/30(목)	12/31(금)	1/1(토)	1/2(주일)
욥 40:1-5	욥 40:6-24	욥 41:1-34	욥 42:1-6	욥 42:7-17	눅 1:1-10	눅 1:11-25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예수님이 오심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지 나누어 주세요.
3.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4. 예수님을 믿고, 보게 된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주세요.